

#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세계\*

김 왕 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1.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몇가지 이유

(1)

--일상생활세계는 모든 이가 태어나 살고, 죽어가는 공간이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사소한 일들로 가득찬 매우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우리가 '당연하다(take for granted)'고 믿고 살아가는 생활세계이다. 일상생활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등 주기적인 시, 공간속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행위들로 구성된다. '일상은 그 하찮음 속에서 반복들로 이루어

- 
- \* 필자는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배경을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운동과 사회과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민사회론등에서 찾고 있다. 과연 진보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그 진보성을 찾아야 하는가? 과학자들이나 엘리트들이 아닌 세인들의 삶속에서 그 진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침 우리 한국사회는 지방자치니 시민사회니 신사회운동등의 담론이 막 부상하고 있다. 환경, 주택, 교통 공공서비스등 일상생활에서 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상성과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던져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필자가 쓴 "일상생활의 철학적 의미와 생활정치"(한국공간환경연구회, 『일상공간과 생활 정치』, 대운출판, 1995)의 일부를 토론의 장으로 내놓기 위해 몇가지 논의를 확대하여 쓴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와 동일하며 아울러 일부 내용은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다. 윗 글에서는 먼저 일상생활의 세계에 대한 관심의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① 일상생활의 의의와 존재조건, ② 일상생활에 대한 자본의 포섭 ③ 국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④ 전통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미시권력과 체제의 거시권력, ⑤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로서 생활정치를 개괄하였다. 이 글은 그 중 ①, ②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이유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본』이 축적을 위해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직하고 포섭해 가는지를 논의해 보고 있다.

진다. 즉 노동안에서나 노동밖에서의 행동들, 기계적인 운동들, 시간, 나날, 주, 달, 해, 선(線) 적인 반복, 또는 순환적인 반복, 자연의 시간, 혹은 합리성의 시간'이라는 표현이나 '일상이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표현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2)

최근 시민사회론과 새로운 운동(론), 예컨대 환경, 주택, 소비, 여성, 인권등을 지향한 운동들과 함께 생활세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일상과 일상세계 그 자체는 우리 학계의 관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특히 국가, 계급, 혁명, 노동 등 거시개념에 집착해 있던 진보진영에서는 일상이나 일상생활세계는 무관심의 대상이었거나 심지어 냉소적인 주제이기까지 했다. 물론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꾸준히 있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상생활연구회가 조직되어 기존 이론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졌는가하면, 이론과 더불어 구체적인 일상성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1985, 일상생활의 이름을 달고 일부 부분영역의 연구도 진행되어 있다. 생활양식론이나 노동계급의 상태론 역시 생활세계에 대한 선구적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부터 세세한 부분영역이 서로 관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자리잡지 못하여 왔다.

-- 지적인 것처럼 일상생활의 세계야 말로 거대한 사건과 이야기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그리고 대부분 세인들의 삶으로 구성된 곳이다. 문제는 학자들이나 일부 실천가들의 학문적 혹은 전략적 담론이 아니다. 궁극적 지향점은 세인(世人)들의 삶이다. 세계는 바로 '별 다른 의식없이' '그러나 때때로 사건을 만들어 내는' 세인들에 의해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곧 생활세계가 시민사회, 국가, 자본의 구조적 조건이 된다. 그들의 생활세계와 일상적 삶이 없다면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진보성을 되찾아야 한다면 그곳은 바로 아닌 세인들의 삶의 형태속에서 일 것이다.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관심의 일부를 다음 인용을 통해 밝혀 보도록 한다.

"...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서가 진보에 대한 모든 논의를 독점하던 시절이 었 그제 같은데 지금은 각종 포스트주의 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열렬한 맑스주의 전도사들은 앞다투어 '개종'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발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여지없이 뒤쳐졌다... 노동운동 등 기존의 진보운동은 방향

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운동 등 신사회운동은 수 없이 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비판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집을 장만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빈민들의 삶의 공간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철거되고 있지만, 아예 언론이나 학계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났고,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광산지역의 현실은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화라는 신종 이데올로기는 샐러리맨들의 하루를 더욱 더 빡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돈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데 대단히 성공하고 있고, 경쟁 논리를 등에 업고 모든 지역에 자본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만들어 놓는 데 성공하고 있다...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자본의 힘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데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그리고 진보운동진영은 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진보진영, 사회과학계가 지나치게 커다란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어서,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은 각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학문적 주제나 정치적 쟁점으로 진지하게 다루어 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진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이 풍부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좋은 체제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 진다 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생활이 풍부해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에 기초한 비판적 언술이란 또 하나의 억압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가 진보 운동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교통, 환경, 도시, 주택문제와 같은 일상의 삶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진보적 대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 일상생활의 세계는 '시공간을 따라, 시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실체이다'. 시간과 공간은 일상적 삶의 형식을 틀지우는 가장 원초적인 조건으로서 인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배열속에서 일상생활이 진행된다. 그런데 사회과학계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사회학의 기본적인 질문이 행위와 구조에 대한 것이라면 행위와 구조의 전제가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들을 사회관계의 분석수준에 접맥시키는 관심은 지극히 드물다.

- 시간과 공간은 사회과정(social process)의 산물이기도하고, 사회과정을 산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무의미하다. 시간과

공간은 사회적인 관계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고 사회관계를 규정짓는, 상호변증법적 관계속에 존재한다.

--- 흔히 일상생활의 세계는 의미구조의 세계로 인식된다. 후설이 '과학의 위기'를 선언하면서 실증주의 지식의 황폐함을 통박하고 의미가 지향된 곳으로서의 생활세계를 강조한 이후 전(前)과학의 세계인 일상생활 세계는 의미형성체로 간주되어 왔다. 세인들의 의식, 의미, 주관성 그리고 상호주관성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논의는 일상생활의 세계를 의미구조로 파악하려는 강한 전통을 낳았다.

-- 생활세계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구성된 세계이다(Scutz, 1975).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도와 혹은 구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일상의 실체를 경험한다(P. Berger and T. Luckman, 1972). 인간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인 '자아(self)'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하며 반응한다.(Mead, 1962) 사회적 구조라는 것도 이런 상호작용의 산물이고 또한 해석과정의 산물이다(Blumer, 1981). 이들의 공통점은 생활세계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의미한 의미구조로 파악한다. 그러나 의미의 세계를 뛰어 넘어 존재하는 구조는 없는가? 의미와 행위 중심의 사고에 강렬히 반박하는 '선형적 실재론자'들은 이미 이 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행위이며, 그런 행위의식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보여준다.

-- 행위가 구조인가 하는 논쟁 그리고 미시와 거시의 논쟁은 매우 매우 진부할 뿐더러 수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이미 형성된 실체로서 행위를 강제하는 구조와 의미를 지향한 행위는 사회학 출범당시로 부터 사회학의 선학들이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 오고 싸움해온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논쟁은 일부 추상적 이론과 방법론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전유물로서 그들만의 담론 대상으로 달혀 버리고 말았다.

#### (4)

사회학계 보다는 오히려 '시간지리학'(time geography)으로 이름 붙여진 탐구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시공간과 일상적 행위의 교차관계가 제시되어 있는 점이 매우 이채롭다.

--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시공간위에서의 삶의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일상생활이란 다름아닌 '시간,공간상의 인생경로'라고 할 수 있는 데 시간과 공간상의 일상생활의 경로를 하나의 도해로 표시하면, 몇가지 영역으로 묶어 진다. 수면, 식사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공간, 노동이나 업무, 여가, 가족생활등이 이루어지는 시간-공간의 영역들, 그리고

이동의 시-공간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매주, 매년 벌어지는 삶의 행위는 이런 시공간의 일상화를 통해 전개된다.

-- 일관성 있게, 시간과 공간과 행위와 구조의 복합적 요인을 조합하여 구조화이론을 정립시킨 기든스의 논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기든스는 역사발전의 과정을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의 도식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화(distanci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사회체계가 부족사회에서 계급분할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은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해소되는 과정, 다시말해 시간공간의 거리화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예컨대 오늘날 '세계화'는 정보,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시공간의 거리화가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 시간과 공간, 구조와 행위 그 자체의 방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세계는 적어도 이 네가지 기본적 요인들이 명쾌하게 상호교차하는 지점이다. 일상생활세계는 오랜동안 사회학의 이론적 숙제가 되어 왔던 시간/공간, 구조/행위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임상실험실'이다. 다시말해 사회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는 것이다(더구나 오늘날 전문성의 이름아래 지나치게 단순화 되고 있는 사회과학계의 학문풍토속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이론적 사유와 검증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일상생활세계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물음들을 한꺼번에 던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회피되어왔던 시공간의 개념을 다시 부활하고 구조와 행위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논의하여 풍부한 이론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안성마춤의 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

## 2. 자본주의 일상생활세계의 시공간의 변화

### (1)

-- 파편화되어 있으면서도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의 궤적을 쳇바퀴처럼 돌아야 하는 일상적 순환이 과연 전(前)자본주의 시대에도 존재 했는가? 존재했다하더라도 문제 투성이로 과연 부각되었을 것인가? 따지고 보면 일상성, 일상생활의 문제가 정말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극도로 인위적으로 틀짜여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이다. 르페브르의 주장대로 일상은 화려한 근대성의

이면이다. 이 근대성의 이면인 일상생활의 공간에는 체제의 강압과 소외가 존재한다.

-- 근대성의 화려함과 일상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 세계속에 나타나는 체제강압과 소외의 원천은 어디인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일상성이 형성되고 일상생활 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자본의 포섭'과 '국가의 관리'가 강화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자본]은 일상생활의 기본 형식적 조건인 시간과 공간의 궤도를 끊임 없이 축적의 논리로 수정하고 동시에 일상생활세계의 내용들(행위와 구조, 노동과 소비)을 축적의 논리로 변형시킨다. 또한 국가는 자본축적의 재생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체제유지와 관리를 위해 생활세계의 내용에 깊숙히 개입한다.

## (2)

-- 잉여가치는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 자본은 축적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규율을 만들어 낸다. 출퇴근 시간, 시간 기록, 엄밀한 시간측정과 통제,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연장등 직접적인 노동 현장에서의 시간 규율의 조직화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상의 궤적을 규정한다. 매일, 매주, 매년에 걸친 시간의 분배는 작업시간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사람들은 출근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그 전날의 행위를 조정하며, 노동시간이 다 지난후에야 소위 자유시간을 갖는다. 휴가와 여가, 소비, 가족생활등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 모두가 노동시간 이후에 배열 된다.

-- 자본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위해서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공간적 거리가 소멸되어야 한다.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공간장벽을 극복하는 길은 공간을 시간적으로 상대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은 따라서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노력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소멸 (the annihilation of space by time)'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시공간의 변화는 결코 한 국가내의 공간으로 규정될 수 없다. 세계화 또는 범지구화의 여파는 일상생활의 시, 공간구조를 또한 급격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화의 촉진자이며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일상의 시, 공간적 궤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시공간 이 극도로 상대화되어 그 범위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3.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재생산 :노동과 소비

#### (1)

-- 일상생활 세계에서의 실천은 곧 재생산 과정이다. 일상생활의 세계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이고 때때로 무의식적인 사회적 규칙의 실천들속에서 인간과 사회가 총체적으로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일상의 과정은 총체적 삶의 재생산과정이다.

-- 실천(praxis)은 많은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육구, 물적 대상, 지식, 일상생활, 정치적 삶'등 모두를 생산하는 것이 실천이다.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재생산한다. 가족을 통해 인구의 재생산이 가능하고 소비와 여가행위를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하며, 그럼으로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체계가 가능해지고 국가의 틀이 유지된다. 학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계급등의 구조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 및 행위성향인 '하비투스'가 일상적 삶의 다양한 실천속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노동은 재생산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다. 노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적 수단을 얻기 위해 근육, 두뇌등을 움직여 자연을 변형시키는 행위이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합목적적 행위로서 곧 자신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실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노동은 철저하게 자본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노동은 자본의 관리와 통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다. 파편화되는 작업과정, 지식의 독점화, 탈숙련화등 이른바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특징지워지는 포디즘의 생산체계하에서 노동은 강요된 재생산의 실천으로 하락하고 있다.

#### (2)

-- 노동이야 말로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지만 그러나 노동의 궁극적 종착역은 소비이다. 소비 역시 재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일상생활이 주목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소비를 통해 인간과 사회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의 영역으로 포섭된 노동의 위상이 왜소해 지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소비는 더욱 중요한 행위로 부각된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통해 충족되며 소비는 궁극적으로 일상생

활을 구성하는 총체적 사회관계들을 재생산한다.

-- 소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노동, 생산적 행위에 비해 드문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가하면(과소소비론) 노동력재생산의 과정, 그리고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의 의식과 규범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조명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비는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이다.( M-C -M : 자본의 순환영역, Lp - W --- 소비과정 --- Lp : 일상생활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정)

## (3)

-- 소비의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좁은 의미에서 축적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는 단순히 물질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를 넘어서 즉, 물질적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을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구조와 생활태도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행위는 노동력 재생산 뿐 아니라 의식과 문화, 이데올로기등을 재생산한다. 일상생활의 세계가 총체적 재생산의 공간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자본주의 생활세계에서 재생산 수단은 곧 상품이다. 인간의 욕구가 점점 더 시장 메카니즘에 종속될 수록 일상적 행위는 더욱 더 상품과 상품의 이미지에 밀접히 접촉하며 일상생활의 의식과 가치, 태도 그리고 행태가 변화하게 된다. 상품자체의 신비화에 대해서는 맑스가 이미 명쾌하게 논의한 바 있지만 오늘날 상품의 신비화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상품은 단지 맑스의 『자본론』에서 묘사된 물신화 뿐 아니라 상징적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더욱 신비화 되는 것이다. 물질적 욕구뿐 아니라 문화적인 욕구가 상품에 덧붙여져 '욕구(need)'의 수준으로 부터 '욕망(desire)'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의 가치도 바뀐다. 노동력 재생산은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평균성이 이제는 물질적 욕구(physical need)를 넘어서 문화적인 욕구(culture need)를 채워야 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곧 소비의 고도화 혹은 노동력 재생산의 고도화가 수반되는 것이다.

## (4)

-- 소비와 소비의식, 소비규범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변모에 따른 것이다. 선진자본주의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포드주의는 비단 극도로 미세한 분업과 표준화된 대량생산체제 뿐 아니라 대량생산에 걸 맞는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을 창출했다. 흔히 ‘미국식 생활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대량소비 생활은 현대자본주의 일상생활의 대표적인 생활패턴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일컬어 지는 포디즘과 케인즈적 국가체계에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포디즘적 미학이 의식을 지배한다. 포디즘적 생산체계에서 새로운 생활규범은 그러한 ‘미학’을 대변한다.

-- 포디즘의 위기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생산체계 이른바 유연적 축적 체계하에서 생산 및 소비의 회전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한 유연성이 도입된다. 제품수명의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재빠른 패션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홍분과 불안, 유동적 미학과 차별성, 스펙타클, 순간성, 문화 및 여가의 상품화”를 촉진시킨다.

-- 자본의 침투영역은 이제 생산의 장만이 아니다. ‘축적의 강령’이 서는 곳이면 자본은 어디든 포섭하는 막강한 침투력을 보이고 있다. 일상의 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정신적 활동이나 서비스, 문화활동, 여가활동등 역시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고,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자본’은 여가 및 문화활동을 상품화하여 소비시킴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신적, 문화적 상품화는 우리들의 소비규범이나 소비양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일상생활의 내용을 조건지우고 있다. 1980년 대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우리사회에도 소비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화의 여파에 따른 시장개방은 한국사회의 소비규범과 소비패턴을 한층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는 단순히 물적 재화만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적 재화를 소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상품에 부가된 사회적 의미나 상징 혹은 이미지를 동시에 소비한다. 물밑듯이 밀어닥칠 세계 초국적 자본의 상품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상징을 소비하게 되고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우리의 사고와 생활유형 즉, 일상양식은 선진자본주의의 ‘세계’를 닮아간다. 그리고 닮아 가려는 모방도 심화된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상품, 광고와 이미지를 쫓아 선진국의 문화와 가치에 일상의적(籍)을 두려는 ‘주변부적 하이퍼리얼리티’로 생활양식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다.....해외자본에 의한 포섭의 강도가 넓어지고 깊어져 우리의 일상과 가치와 규범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선진자본과 국가에 의해 재생산될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세계자본에 의해 사회화되어 가고 있다. 굳이 하버마스의 말을 빌자면 자본과 국가의 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전 지구적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 4. 과제: 일상생활의 정치

『자본』이 일상생활을 축적의 논리로 변형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상생활의 형식을 규정하는 시간과 공간이 자본의 이윤논리에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일상생활의 생활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실천이 개인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행위라면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소비행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자본』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섭하는 거대한 '권력'이다. 일상생활 세계의 주체성과 진보성을 획득하려 한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실천이 요구된다.

일상생활속에서의 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이 곧 생활정치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세계에서의 권력은 비단 자본의 권력뿐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세계의 삶의 조가리들 속에는 다양한 권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세계는 국가, 자본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거 '수직권력'과 생활속의 전통으로 굳어져 다양하게 전개되는 '수평권력'의 교차 공간이다. 전자는 종종 생활현장에서 거시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암묵적으로 나타나지만 후자는 인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속에서 주로 미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미시권력' 혹은 '미시폭력'은 위계적인 사회관계 예컨대 남, 녀 간의 성별관계에서,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서, 조직의 상사,부하직원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 일상생활의 정치는 국가에 의해 점차 관료화되고 자본에 의해 더욱 조직화되는 그리고 억압적 전통에 의해 무기력화되는 일상생활의 보수성을 극복하는 진보적 정치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생활정치의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다.

-- 일상생활의 정치는 또한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관심을 전제한다. 장소는 일상생활이 궤적을 그리는 공간이다. 장소에 대한 성찰은 일상생활의 작은 관계들에 대한 성찰이며 주체에 대한 부활과정이다(Bondi, 1993). 끊임 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일상의 보수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총체적 소외의 극복을 위해서는 장소와 생활에 대한 성찰, 곧 '작은 정치'에 대한 사소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막 우리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자치는 생활정치로서 장소의 정치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